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우리가 경험한 산업사회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질 것이라는 데서이다. 과학기술면에서 볼 때 산업사회 이전에는 경제·사회발전에 기능인의 역할이 컸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자들이 기능인의 역할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이 경제·사회발전의 주역이 된다. 그래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 대비되는 골드칼라로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고급인력을 지칭하기도 한다.

선진 여러 나라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여러 선진 국가의 기업이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선진국의 이른바 다국적 기업들은 수많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고급 과학기술자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여 이윤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해 놓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급 과학기술자들로 구성된 연구집단이 이룩한 기술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순기능(順機能) 순환(循環)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50% 정도를 기업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오늘의 세계화된 무한 시장경쟁에서 제품이 살아 남으려면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류제품이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 너무 거리가 있다.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자의 75% 정도가 대학에 있다. 기업이 수용하고 있는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 인력은 고작 17%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대우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이윤이 낮은 제품생산에 주력하다보니 대량생산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했고 이를 위해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 문어발 식이 되어 결국은 거꾸러지고 말았다.

우리는 대우사태를 보았으면서도 아직 기업이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없다. 우리의 기업인들은 고급 과학기술자들이 창출할 고부가가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다. 기술은 사오면 되고 어떻게든 제품을 생산해서 팔면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바뀌어

가는 거대한 물결에 우리 기업인들의 신경이 너무 무디어 있다.

왜 일까.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언어와 기업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인이 걸어온 길과 과학기술자들이 걸어온 길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보는 눈도 생각도 다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일 뿐 기업인의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말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과학기술에 대해 무식한 것과 같이 기업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다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시대의 격변기엔 국가의 위상도 요동을 치기 마련이다. 지식기반사회로 가는 길목은 많은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격변기에 선진국은 커녕 지금보다 더 낮은 단계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곧 자본이동이 자유화될 조짐이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과학기술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한층 증대될 것이다. 과학과 경제의 언어 소통문제가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특히 경제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⑤⑦

李光榮 (전북대 자연대 초빙교수)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⑤

과학과 경제언어